

특집 ● 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오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철제를 주는 것이 좋다.

학질모기에 의하여 전파되는 마라리아의 예방은 다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몸에 충을 가진자를 철저히 찾아내고 치료를 해준다.

둘째로 모기에 대하여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유충의 번식할 물웅덩이를 매우는 것등을 시행하여야 될 것이다.

현재 마라리아는 이웃 나라인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오키나와등지에서는 이미 박멸되었거나 자연소멸되었으나 현재 한국에서도 발생수가 많이 늘어 들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고 재차 상승될 염려도 없지 않으므로 마라리아 완전 박멸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필자=서울직실자병원 내과과장·의박)

새마을건설은 기생충퇴치부터

영아의 급성 설사증



윤 중 구

어린 영아에서는 설사로 인해 중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설사는 대변의 회수와 물기가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특집●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원인: 과식이나 영양 부족, 병원성 대장균, 이질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기타 여러가지 병원균의 위장관 감염, 감기를 위시하여 중이염, 기관지염, 폐염, 기타 위장관 이외의 기관의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될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여러가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젓먹이에 심한 설사가 발생하는 것이 알려졌다. 영아의 중한 설사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기온이 무더운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되며 외국에서는 주로 우유 영양아에 발생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유기에 들어간 젓먹이에 발생하므로 이유 방법이 잘못 되었든가 이로 인해 젓먹이의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외에 체질적으로 체내의 수분이 불안정한 상태이어서 열이 나든가 사소한 설사로 인해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이 대량 손실되어 중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증세: 영아의 중한 설사증은 단순한 위장의 병이 아니고 수분과 전해질의 대사에 장애가 오는 전신

적인 질환이다. 설사는 처음에는 1일에 수회에 불과하기도 하나 점차 물같은 설사로 변하며 1일에 수십번에 이르기도 한다. 대변에는 점액, 고름등이 섞이기도 하며 녹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구토는 1일에 수회 내지 수십회에 이르기도 하고 담즙이나 피가 섞이기도 한다. 그외 헛배가 부르고 맥은 빠르며 가늘고 피부는 창백하며 호흡도 깊고 불규칙하게 되며 심한 탈수증세가 나타나서 체중은 갑자기 감소하며 눈과 숨구멍이 들어가고 입안의 점막이 건조하며 심하면 혀가 마치 고양이 혀처럼 째째하게 된다. 이런 때에 뺨가죽을 잡아 보면 잡힌 주름이 잘 펴지지 않으며 얼굴은 표정이 없어지고 열이 나며 심한 경우 경련 또는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치료: 1. 기아요법: 대개 구토가 심하니까 먹일데야 먹일 수도 없는 것이 굶기는 이유의 한가지가 되고 그외에 위장도 좀 쉬게 하고 또 음식물이 창자 속에서 불완전하게 분해되어 유독한 물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굶기는 처

특집 ● 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며칠씩 계속하여 굶기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12~24시간 정도에 그친다. 굶는 동안도 수분만은 충분히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 헛배가 심히 부르든가 또는 구토가 심하지 않으면 물은 먹는 대로 많이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먹으면 곧 설사하니까 설사할까봐 무서워서 물을 안먹인다는 것은 설사로 말미암아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어서 위험한 탈수증이 생긴 것을 더욱 악화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웬만한 정도의 탈수증은 물을 먹이기만 하여도 회복되며 또 설사를 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젓먹이가 희망하는 대로 충분히 물을 먹었다면 탈수증까지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수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보통은 맹물을 먹여도 상관없으나 탈수증이 발생한 때에 맹물을 계속 먹이면 저장성 탈수증으로 될 염려가 있고 그렇다고 소금을 타서 먹이면 고장성 탈수증이 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도록 먹여야 한다.

1) 물(1,000cc) + 중조(2.5g)

2) 물(1,000cc) + 중조(2.5g) + 입화가자(1.5g) + 포도당(50g)

이것을 체중 1kg에 대하여 160cc 먹이면 젓먹이에 매일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2. 수액요법 : 구토 설사등으로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손실되어 혈액의 분량이 줄고 농축됨으로 인해 혈액 수분장애, 신장기능 장애, 산혈증등 여러가지 위독한 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될수록 빨리 매일매일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의 분량과 또 지금까지 손실된 것을 주사로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

3. 식사요법 : 굶기며 한편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열도 내리고 구토 설사도 경쾌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될수록 빨리 입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바꿔야 된다. 식사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에 적은 것과 같은 용액을 먹여보고 구토, 설사가 더 심해지지 않으면 모유, 탈지유, 담백유등을 사용하든가 우유를 사용하여 영양을 보급하기 시작한다. 우유를 사용할 때는 1/3우유를 희석하여서 시작하며 처음에는 소량부

터 즉 1회 분량을 20~30cc, 1일 8~10회로 시작하고 대개는 1~2일 간격으로 1회 분량을 10cc가량씩 증가하여 간다. 그리하여 1회 분량이 100cc이상에 이르면 우유 농도도 1/2, 2/3, 전유와 같이 서서히 높혀간다.

모유를 사용할 때에도 처음에는 짜서 주며 1회 분량이 50cc이상 증가한 때부터는 1회에 1분, 2분과 같이 직접 빨리고 빠는 시간을 연장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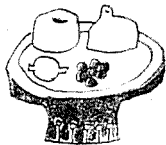
4. 약물요법 : 위장의 감염이 있어 곱똥을 누든가 또는 중이염, 기관지염, 기타 감염이 있을 때는 적당한 항생제를 사용할 것이며 구토, 수면 부족, 식욕 부진등 증세가 있으면 그 증세에 따라 치료한다.

(필자=서울의대 소아과 조교수·의박)

소아마비(폴리오)



최 평 화



소아마비는 폴리오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전염병이다.

주로 어린이들이 본병에 감염되어 평생 불구의 마비를 남기기 때